



### 1. 개인소개 :

저는 불교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의 할아버지는 몽골불교계에 유명한 승려입니다. 저는 독자로 자라면서 두 분 할아버지의 바램을 따라 불교의 승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불교가문을 이으며 우상문화를 대표하는 손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절 1994년 일년동안 불교사찰에서 승려가 되기 위해 티벳의 문자를 배우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995년 몽골의 첫 크리스찬 텔레비전 방송인 이글TV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방송은 예수영화를 방영하였고 저는 몽골의 복음자유교회(Evangelical Free Church)를 찾아가 1997년 할아버지 성경을 배웠습니다. 1997년 세례를 받았고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인 The Union Bible Theological Collage에 1998년 등록하여 다녔습니다. 저는 오순절계통의 복음자유교회의 대학부를 맡아 처음에는 부사역자로 그리고 이후 담임사역자가 되어 2003년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아내 라그바자브(Lhagvajav Battsetseg/Lovega)와 저는 교회에서 1999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에게 현재 3자녀가 있습니다—아들 Uguumur (13살), 딸 Ulemjin (6살), 막내 딸 Evelyn (1살)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미국과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정사역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은 침례교목사,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저희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정사역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내와 저는 14년동안 동역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12년동안은 전적으로 저희 부부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Spirit Life” Bible College를 200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더하여 “River of Life” 사역학교를 2006년에 졸업했습니다.

### 2. 티벳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섯번이나 저의 관심이 티벳 민족을 향하도록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1) 어린 시절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이 첫 인도하심입니다.

2) 저의 한 제자가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할 때 티벳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몽골소재 UNDP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의 절친한 친구목사 한 가정과 그의 교회가 또한 몽골에서 티벳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티벳에 관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제가 자신들의 티벳선교사역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3) 제가 새 교회를 개척할 당시 교회를 방문한 한 가정이 티벳선교를 위한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헌금액은 한 선교사가 일년동안 티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4) 2011년 9월 저는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All Nation Convocation 24/7 prayer 행사에 참가했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티벳을 향한 마음을 불러 넣어주시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저희는 지난 여름 몽골청년 여름 수양회에서 몽골제일교회의 목사인 오토곤바야 (오기)목사를 만났습니다. 오래 전 이미 아는 사이였지만, 오기목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티벳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LA에서 올라와 저희가 현재 오를랜드 인근에 거처를 정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베이지역에 티벳사람들이 약 1만명이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기목사의 몽골제일교회와 제휴하여 티벳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느날, 저는 달라이 라마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우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민족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티벳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